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 21-5 호
 2021년 3월 15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 2020년 중국 물류산업 주요 지표 (조 위안)

구분	금액	증가율
사회물류 총비용	14.9	2%
운송비	7.8	0.1%
보관비	5.1	3.9%
관리비	1.9	1.3%
사회물류총액	300.1	3.5%
물류산업 총수입	10.5	2.2%

자료 : 중국물류·구매연합회.

■ 사회물류 총비용과 사회물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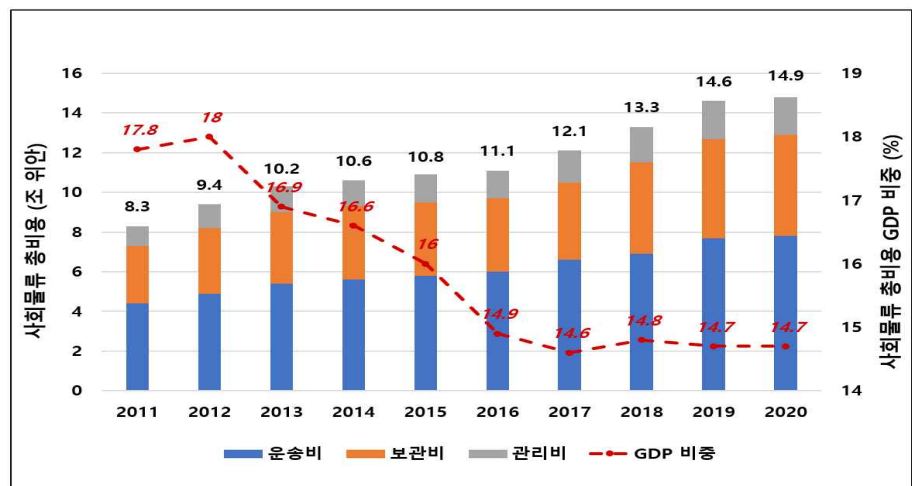
– 사회물류 총비용(Total social logistics costs)은 '중국 내 상주하는 경제 주체들이 물류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에 해당함.

– 사회물류 총액(Total value of social logistics goods)은 중국 국내 수요 영역에서 화물이 공급지에서 도착하기까지의 실제 유통에서 발생하는 '가치 총액'으로, 물류비(Costs)의 개념이 아니라, 물류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의 총 가치(Total value)'의 개념임(사회물류 총액 > 중국 GDP).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2% 증가, 증가율 전년 대비 크게 줄어

2020년 중국의 '국가물류비'에 해당하는 사회물류 총비용(社会物流总费用, Total social logistics costs)은 14조 9천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대비 5.3%p 하락했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됨에 따라 물류업 또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사회물류 총비용 중에서 운송비용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7조 8천억 위안이었고, 보관비용과 관리비용은 각각 3.9%와 1.3% 증가한 5조 1천억 위안, 1조 9천억 위안이었다. 운송비용과 보관비 및 관리비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7.1%p, 3.5%p, 5.7%p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사회물류 총비용에서 운송·보관·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52.7:34.4:12.8로 조정되었으며, 이 중 관리비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2018년 52.7:34.2:13.0). 2020년 사회물류 총비용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은 '14·5'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및 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쌍순환" 발전 구도를 기반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및 물류업은 지속해서 호전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총 물류규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수요구조가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고품질 물류 서비스 체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 업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지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중관계 악화 등 영향으로 급격한 선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양회(兩會)’¹⁾는 중국 정부가 매년 3월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 정부 예산, 경제성장률 및 각 분야의 정책들을 제시·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이다. 전통적으로 ‘양회’는 3월 초에 개막되어 3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나, 2020년²⁾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위해 지난 3월 4일 ‘전국정협 13기 4차 회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1일 ‘13기 전인대 4차 회의’ 폐막식까지 올해에도 약 1주간 진행된 후 조기 종료되었다.

코로나19 이전 과거에 비해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2021년 ‘양회’에서는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개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를 비롯한 다양한 결의³⁾가 통과되었다. 중국에 있어 ‘13·5’ 기간(2016년~2020년)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고 ‘첫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한 시기였다면, ‘14·5’ 기간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이자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나가는 첫 번째 5년이다.⁴⁾ 특히, 2021년은 ‘14·5’ 계획의 개국 첫해이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양회’는 더욱 중요하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교통운송 분야 관련 건의(建議) 안건은 총 242건(2020년 23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운·항만·물류분야의 논의들이 다양했다.⁵⁾

따라서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우선 2021년 ‘양회’에서 의결된 「정부 업무보고」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올 한해 및 중장기 해양수산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 1) ‘양회’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정협)를 통칭하는 용어임.
- 2)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당초 3월 5일 개최 계획보다 2달 이상 연기된 5월 21일 베이징에서 개막됨. ‘전국정협 13기 3차 회의’는 5월 21일~5월 27일, ‘13기 전인대 3회 회의’는 5월 22일~5월 28일 개최됨.
- 3) 전인대 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전인대 의사규칙 개정에 관한 결의안,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됨. 또한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2020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2021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 2021년 중앙 예산,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 인민 검찰원 업무보고 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
- 4) 중국은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100년 목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에 진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0년 목표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임. 시진핑 주석은 이를 다시 2단계(2021~2035, 2035~21세기 중엽)로 구분하여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KIEP,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12.2., Vol. 20 No. 29.)
- 5) ‘양회’에서는 ‘의안(議案)’과 ‘제안(提案)’, ‘건의(建議)’ 등의 안건을 발의하는데, ‘의안’은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이 발의하는 안건, ‘제안’은 정치협상회의의 위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단독으로 건의(의견, 비판)를 발의할 수 있음. ‘의안’은 통과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제안’이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부처·기관에서 이에 대해 환류를 진행함(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 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KMI 중국리포트」, 2020.6.15., 제20-10호.)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1 「정부 업무보고」로 본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

1) 2021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3월 4일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을 실현하는 등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각종 지표로 본 경제운영도 2020년 목표치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여전히 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경제회복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1년의 정책기조는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리 총리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예상치(6% 이상)를 제시했으며⁷⁾, 이처럼 가이드라인 성격의 예상치를 제시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표 1] 「정부 업무보고」에 제시된 2021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GDP 증가율(%)	6.0~6.5	6.1	미제시	2.3	6.0 이상
CPI 증가율(%)	약 3	2.9	3.5	2.5	3.0 내외
도시 신규취업자(만 명)	1,100 ↑	1,352	900 ↑	1,186	1,100 ↑
도시 조사실업률(%)	5.5 이내	4.9	5.5	5.2	5.5 이내
재정 적자율(%)	2.8	-	3.6	-	3.2 내외
무역 증가율(%)	안정속 질적개선	-0.96	국제수지 균형	1.49	안정적·질적 성장 국제수지 균형
철도 투자(억 위안)	8,000	8,029	8,000*	7,244	미제시
도로·수운 투자(억 위안)	18,000	23,185	18,000**	-	미제시
식량 생산	-				6.5억톤 이상
에너지 소비량 저감	-				GDP 단위당 3% 수준

주: 2020년 및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철도(*)와 도로·수운(**) 투자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2020년 수치는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에서 제시된 목표치임.

자료: 2021년 중국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년 특별한 '양회'의 눈길 가는 해양수산 이슈들", 「KMI 중국리포트」, 2020.6.15., 제20-10호를 바탕으로 KMI 정리.

「정부 업무보고」에는 경제성장률 외에도 2021년 기타 세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도시조사실업률 5.5% 수준으로 제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 안정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3.2% 내외로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과거에는 목표치로 특별히 제시하지

6) 2020년 GDP는 2.3% 증가한 101조 6000억 위안, 도시 신규취업자는 1,186만 명, 도시 조사실업률은 5.2%를 기록함. 소비자 물가지수는 2.5% 상승했으며,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 이상으로 유지됨.

7)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20년을 포함해 총 4차례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않았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감축 목표치(3% 감축)와 식량 생산 목표치(6.5억톤 이상)를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수출입의 안정적·질적 성장, 국제수지 균형 기본 달성, 주민소득의 안정적 성장, 주요 오염물 배출량 지속 저감 등을 지향하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①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유지 및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운행 촉진, ② 중점분야 개혁 심도 있게 추진, 시장주체의 활력 보다 활성화, ③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혁신 및 추진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 및 강화, ④ 내수 확대 및 국내시장 잠재력 충분히 발굴, ⑤ 농촌 진흥전략 전면 실시,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 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국제무역 및 외자의 안정적·질적 발전 촉진, ⑦ 오염방지 및 생태건설 강화, 환경품질 지속 개선, ⑧ 민생복지 증진, 사회건설 수준 지속 제고'를 2021년 8대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 「정부 업무보고」에 제시된 2021년 중국 중점 추진과제

구분	중점 추진과제	세부 과제
1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유지,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운행 촉진	·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질적 발전 제고, 효율 증대, 지속가능 발전 추진 · 감세정책 최적화 및 집행 · 건전한 화폐정책을 운용하되 융통성 있게 타겟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용 · 고용우선 정책을 지속 강화, 역량을 집중하여 효과 증대
2	중점분야 개혁 심도있게 추진, 시장주체 보다 활성화	· 정부의 직능을 진일보 전환 · 개혁을 통해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 인하 ·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 촉진 · 세제·금융체제 개혁 심화 추진
3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 혁신·추진, 새로운 동력 육성·강화	·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 시장체계를 운용하여 기업의 혁신 독려 · 산업·공급사슬의 최적화 및 안정화 추진
4	내수 확대, 국내시장 잠재력 충분히 발굴	· 소비 안정화 및 확대 · 효과적인 투자 확대
5	농촌 진흥전략 전면 실시,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	· 빈곤 퇴치 성과 확산을 농촌 진흥과 효과적으로 연계 · 곡물 및 중요 농산품 공급능력 제고 · 농촌개혁 및 향촌건설 추진
6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국제무역 및 외자의 안정적·질적 발전 촉진	· 수출입의 안정적 발전 추진 · 적극적·효과적으로 외자 이용 ·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 다자·양자간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 협력 심화
7	오염방지 및 생태건설 강화, 환경품질 지속 개선	· 생태환경 정비역량 지속 강화 ·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각종 사업 착실히 추진
8	민생복지 증진, 사회건설 수준 지속 제고	· 보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발전 추진 · 위생건강체계 구축 추진 · 주민 주택수요 보장 · 기본 민생 보장 강화 · 국민의 정신문화 수요 보다 충족 · 사회 관리 혁신 및 강화

자료: 2021년 중국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KMI 정리.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2) <'14·5' 계획 및 2035년> 기간 전략 방향

한편,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중국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포함하는 <'14·5' 계획>에는 대내적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한 대외 리스크 감소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14·5' 계획> 기간 주요 경제정책이 될 6개 분야는 △ '쌍순환' 발전전략 △ 혁신주도 성장 △ 산업구조 고도화 △ 내수시장 활성화 △ 신성장동력 창출(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 △ 대외개방 전략이다.⁸⁾ 또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처음으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 구간 내에서의 경제운행을 유지하되 매년 상황 맞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이번 양회에서 검토된 <'14·5'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15년 '교통강국, 해양강국, 무역강국, 제조강국,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중국, 네트워크 강국, 지적재산권 강국, 품질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 법치 중국, 아름다운 환경 중국, 안전한 중국, 건강 중국, 스포츠 강국, 문화 강국, 독서 중국'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표 3]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15년 후 중국 미래상

구분	주요 내용
교통강국	· 세계적인 항만클러스터 및 항공클러스터 건설 가속화 · 도시망 및 도시권역 교통 일체화 추진
해양강국	· 고품질의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및 특화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건설 · 연해, 수역, 해역을 일체화한 종합 정비체계 구축 모색
무역강국	·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조달·무역 등 새로운 모델의 발전 가속화 ·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 개방플랫폼의 구축 추진
제조강국	· 주요 기술장비 공략, 스마트 제조 및 친환경 제조공정 추진
과학기술 강국	· 기초연구 10년 액션플랜 제정 및 실시, 핵심기술 확보
디지털 중국	· 핵심 디지털기술 혁신 및 응용 · 쇼핑, 자택생활, 여행·레저, 교통 이동 등 각종 상황의 디지털화
네트워크 강국	· 중서부지역 소도시 기초네트워크 완비 · 5G 네트워크 규모화 배치 가속화, 6G 네트워크기술 역량 사전 확보
지적재산권 강국	· 특허 집약형 산업 육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 완비
품질강국	· 품질 제고 심도있게 추진, 국가품질 기초시설 개선
교육강국	· 일류 대학 및 학과 건설, 의무교육의 양질·균형 발전, 도농 일체화 추진
인재강국	· 전방위적 우수 인재 양성, 유치, 활용 · 국내외 우수인재를 집결한 과학기술혁신 고지(高地) 구축
법치중국	· 법치사회 및 법치정부 건설 실시요강 추진 · 헌법의 전면 실시를 보장하는 체제 완비
아름다운 환경 중국	· 중요한 생태시스템 보호·복원 중대사업 실시 · 오염방지 극복사업 심도 있게 추진

출처: 人民日报

자료: 腾讯网, <https://new.qq.com/omn/20210308/20210308A09MKE00.html>(검색일: 2021.3.14.)

8) KIEP,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12.2., Vol. 20 No. 29.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3) '양회' 중장기 해양·수산 정책 방향

(1) 해양·수산 중장기 키워드

올해 '양회'의 중장기 키워드로 쌍순환, 탄소중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조되었다.

가. 쌍순환 발전

중국 정부는 '14·5' 기간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단계에 새로운 발전 이념(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을 관철하고 쌍순환 발전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 중심의 고품질 공급으로 신규 수요선도 및 창출, 공급 시스템의 탄력성 및 국내 수요에 대한 적합성 제고, ②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 가속화, 수요측 관리 강화, 거대한 내수시장 구축, ③ 확고한 개혁 추진, 경제 순환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 해소, 생산 요소의 순환, 생산-분배-유통-소비의 유기적 연계 추진, ④ 개방 확대, 요소 흐름의 개방을 지속 심화, 제도적 개방 꾸준히 확대, 국내 경제 순환 시스템에 의존한 글로벌 요소자원 유치 및 활용, ⑤ 국내 대순환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국제 순환을 통한 국내 대순환의 효율성과 수준 향상, 국내 및 국제 쌍순환 발전 촉진을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나. 탄소중립 정책

'14·5' 기간 중국은 녹색발전으로의 전환 가속화, 경제의 고품질 발전 및 생태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및 1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2021년에는 탄소피크, 탄소중립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바, 2030년 탄소배출량 피크에 대한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산업 및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사용권 및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와 소비에 대한 이중 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녹색 및 저탄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특별 정책을 시행하고 탄소 감축 지원도구도 마련하고 생태계의 탄소싱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다. 디지털 중국

'14·5' 기간 신형 인프라의 건설을 추진하고 디지털화 발전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경제우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하고 양질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중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라. 지역 협동발전

'14·5' 기간 중국은 지역경제의 구도 배치 최적화 및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웨이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중대 사업으로 계속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2021년 및 중장기 해양·수산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

가. 해양 분야

‘14·5’ 기간 중국은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공생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으로 ‘산(山)·수(水)·림(林)·전(田)·호(湖)·초(草)’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생태장벽 구축을 추진하며 국립공원 중심의 자연보호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황하유역의 생태보호 및 숭안(雄安)신구의 고품질 건설 추진을 중대 사업으로 제시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양경제 발전공간의 적극적 확대”를 언급했다.

특히, 2021년에는 하천과 바다로 연결된 오염물 배출구 및 도시의 악취와 변색된 하수를 정돈하고, 도시 생활오수 및 산업단지의 공업폐수 처리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나. 수산 분야

2021년 중점 사업으로 향촌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촉진시키며 식량 생산을 확보하고 가축, 수산양식업 등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보호보상조례’를 제정하고 오염 예방·통제 및 생태보호를 위해 ‘창장 10년 금어’ 정책을 실시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사업을 중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14·5’ 기간 중국은 산업사슬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2021년에는 산업사슬, 공급사슬 최적화 및 안정화를 위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투자를 확대하며, 5G 네트워크 구성을 확대하고 산업사슬의 상하방 체인 표준을 효과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14·5’ 기간 고품질 “일대일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이를 위해 함께 건설하고 함께 나누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원칙을 준수하는 다원화 투융자 체계를 건지하고, 대외투자 협력의 효율과 이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14·5’ 기간 중국은 또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일류의 경영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물류비용 인하를 위해 항만 건설비 징수 전면 취소, 민항발전기금 항공사의 징수 기준을 20%로 인하하고 고속도로의 차별화 요금 징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크기 제한 도로와 검문소를 정비하고,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기초성격 업종의 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비용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14·5’ 기간 중국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개혁개방 심화를 위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진하고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개방을 강화하며, 세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및 자유무역시범지구 통합 개발 촉진, 개방형 플랫폼 다양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또 수출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외환 수입 및 무역결제 촉진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심화하고 가공 무역 안정화,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제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항만 요금을 정리 및 표준화하며 통관 용이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2 '양회'에서 논의된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

1) 탄소제로배출선박 개발 촉진을 통한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동창젠(董强) 전국정협위원 및 중국선박그룹유한회사 당서기 겸 회장은 저탄소/탄소제로 배출 선박 개발을 조선산업 '14.5'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그는 중국의 국정과 기술 성숙도를 종합하여 저탄소/탄소제로 배출선박 개발을 위한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제로배출선박의 발전 경로와 저탄소/탄소제로배출의 단계별 목표 및 이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저탄소/탄소제로 배출 선박의 연구개발과 운영을 대폭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기, 항공 우주, 에너지 및 기타 산업과 선박공업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연료 전지 및 저온소재 등 분야의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련 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2) 크루즈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전인대 대표인 중국 선박그룹 725과학기술위원회 마위푸(马玉璞) 주임은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¹⁰⁾ 크루즈산업이 RCEP에 미치는 추진과 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쉬쥔후이(徐珏慧) 전국인민대표 겸 상하이항국제여객중심개발유한회사 총경리는 창장 전구간을 관통하는 크루즈관광 서비스를 마련해 내하 고품질 크루즈관광 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¹¹⁾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창장항운그룹 대표 장루이(张锐)는 창장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창장 크루즈선사에

9) 中国远洋海运e刊, https://mp.weixin.qq.com/s/0_muqsdHi-0N5dXyEIAcyg(검색일: 2021.3.12.)

10) 航运交易公报, <https://mp.weixin.qq.com/s/hjpkptaForm9W1PYf-pTIA>(검색일: 2021.3.15.)

11) 상동.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크루즈선 수송능력에 대한 관리 강화도 절실하다고 건의했다.¹²⁾

3) 신형 교통인프라 발전 촉진 및 스마트항만 건설

쑤첸커(苏权科) 정협위원은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통한 웨강아오(광둥성, 홍콩, 마카오) 대만구 신형 교통 인프라 발전 추진을 제안했다.¹³⁾ 그는 향후 10년간 신형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제한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및 5G등의 신형인프라와 기존 인프라가 함께 개발되고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웨강아오 대만구 안전감독 및 IT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주장삼각주 지역 교통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감독, 스마트 기술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웨강아오 지역 주요 인프라 운송관리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인대 대표이자 샤먼 컨테이너터미널그룹 노조위원장 평홍창(冯鸿昌)은 이번 양회에서 “항만의 자율주행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건의”를 제출했다.¹⁴⁾ 그는 ‘14.5’ 기간 내에 자율주행 지원 체계를 완성하고 세계일류항만 건설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¹⁵⁾

4) 창장항운 발전의 녹색 전환 촉진¹⁶⁾

전국정협위원이자 중국항해학회 이사장 허젠중(何建中)은 “중국 내하 수운의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바, ‘14.5’기간 내하 수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재정 투자, 특히 중앙재정자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창장항운건설 중앙채권을 발행해 국가 녹색발전기금 녹색교통투자펀드를 설립하고, 내하 수운 발전과 관련한 스마트항만, 녹색항만 및 현대물류 등 프로젝트를 기금 투자범위에 포함시켜 시장 투자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인대 대표이자 중국 창장항운그룹 대표 장루이(张锐)는 창장의 화물선 LNG 보급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교통운수부가 주가 되고 기타 관련 국가 부서 위원회, 주요 해운기업 및 연료 공급기업들이 참여하여 “선박LNG 보급활용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지원책과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창장 항운의 녹색, 스마트,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전국정협위원이자 자오샹쥬(招商局)그룹 대표인 리젠홍(李建红)은 “창장보호법”을 정착시키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LNG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보하여 LNG 가격 규제와 공급보장 메커니즘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창장의 LNG 병커링선과 수송선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이들의 창장 시범 운영을

12) 中国远洋海运报, https://mp.weixin.qq.com/s/0_muqsdHi-0N5dXyEIACyg(검색일: 2021.3.12.)

13) 中国水运网, <http://www.zgsyb.com/news.html?aid=583782>(검색일: 2021.3.8.)

14) 中国远洋海运报(검색일: 2021.3.12.)

15) 航运交易公报(검색일: 2021.3.15.)

16) 상동.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허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5) 업계의 입법 및 법 집행 강도 증대¹⁷⁾

법 집행 측면에서, 전인대 대표 쉬리룽(许立荣) COSCO SHIPPING그룹 회장은 중국이 해운대국 및 해양대국에서 해운강국 및 해양강국으로 변화하려면 해운과 해양 분야 규칙제정에 대한 발언권과 상사분쟁 처리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해운산업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하이 법원은 사법 수단을 운용하여 해운업, 무역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 그 역할이 날로 강화되어야 하며, 전 세계 해운과 무역분쟁 처리에 더 많은 '중국 요소'를 주입해야 됨을 강조했다.

6)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 증대¹⁸⁾

환전 비용 절감, 환율 리스크 완화도 해운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이다. 전인대 대표 쉬리룽(许立荣)은 위안화를 국내에서 국제무역과 해운업 결제통화로 활용하자고 건의를 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제상품교역·해운·서비스구매 등의 분야에서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들의 환전 비용과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7) 해상실크로드 사업을 '일대일로' 중점 프로젝트에 포함¹⁹⁾

전인대 대표이자 샤먼 컨테이너터미널그룹 노조위원장 평홍창은 “‘실크로드 해운’을 국가 ‘일대일로’ 중점 프로젝트 포함에 관한 건의”를 이번 양회 때 제출했다. 첫째, ‘실크로드 해운’과 ‘일대일로’의 전략적 접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크로드 해운’과 교통강국, 국가물류허브 등 부처 간 중점 사업과의 접목을 강화하자고 건의했다. 둘째, ‘실크로드 해운’ 브랜드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 예를 들면, 선적항에서 세금 환급, 세관·항만·해운·무역 데이터 교환 등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푸젠(福建)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3 '양회'에서 논의된 해양·수산분야 주요 이슈

1) 해양보호지 체계 건설 강화

전인대 대표인 마화텅(马化腾) 중국 텐센트 홀딩스 회장 겸 도화원펀드(桃花源基金) 이사는 생태환경 보호 이슈와 관련 「웨강아오 대만구 해양보호지 체계 건설 강화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²⁰⁾. 「건의」에서는 레드라인 제도 엄격 시행, 해양보호지 면적을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 해아

17) 상동.

18) 상동.

19) 中国远洋海运(검색일: 2021.3.12.)

20) 桃花源基金会, <https://view.inews.qq.com/a/20210304A02WYV00>(검색일: 2021.3.8.)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기관 간의 소통·조정 메커니즘 수립, 대만구의 해양 자연보호지 건설 역량을 제고, 해양 자연보호지 관리에 대한 사회조직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블루카본싱크' 발전 촉진

선궈쥘(沈国军) 전국 정협대표 겸 은태그룹 동사장은 「블루카본이 국가 '탄소중립' 전략 지위 제고」에 대해 제안하면서, 중국의 해양생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의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블루카본싱크'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룽(张荣) 전국인대대표 겸 샤먼대학교 교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탄소배출을 감소하는 동시에 탄소싱크도 증가해야 하고, 'Negative emissions²¹⁾'에 대한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²²⁾ 중국이 '블루카본싱크'를 대대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중국 국내에서의 기반을 다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블루카본싱크'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모니터링 평가, 시범사업, 인재육성 등을 통하여 '블루카본싱크'에 관한 중국의 노하우의 세계 제공을 제안했다.

2) 연해 고품질 발전벨트 국가전략 수립²³⁾

샤오쥔칭(邵志清) 전인대 대표는 연해 고품질 발전벨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연해지역 모든 성, 시, 자치구가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적으로는 양호한 발전계획이었지만 국가차원에서의 통합과 조정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및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등 지역조정 발전전략을 참고하여 연해 고품질 발전벨트의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4)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²⁴⁾

류충(刘聰) 전국정협위원 겸 장쑤성 자연자원청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해양법 체계를 보완하여 해양산업발전과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해양종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해양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과학 연구에 대한 투입을 확대, 국가급 해양과학연구기관의 연해지역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해지역에서 석유화학, 신소재, 신에너지 등 중요산업의 구조배치를 최적화시키고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1) 'Negative emissions' :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제거, 재이용

22) <https://mp.weixin.qq.com/s/noN7V6ho-gl7wFXynZv5rA>

23) <https://mp.weixin.qq.com/s/nc6hWCuIlbU6vmvm4ud3vQ>

24) https://mp.weixin.qq.com/s/1w1mSDH2cRF99KIV_h3dAw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치공당(致公党)은 「해양자원에 대한 보호와 개발 조화롭게 추진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고,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해양신산업의 육성, 현대 해양서비스업 발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오쯔하오(赵志豪) 전국인대대표 겸 칭다오시 시장은 이번 산둥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칭다오시에서는 해수양식, 해양플랜트, 항만물류,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 관한 산업체인 협동발전 추진으로 자원공유, 분업협력, 상호보완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5) 해양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의 구축 촉진²⁵⁾

허광순(何广顺) 전국 정협위원 겸 국가해양정보센터 센터장은 "정부가 해양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유도하고 규범화시키는 역할을 강화하고, 해양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해양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해양관련 기업을 위한 기술정보, 자문, 테스트, 홍보, 투자자 및 제품의 개발, 설계, 가공, 검측, 대형 설비의 공유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국가 원양어업 기지, 국가중대사업으로 국가발전계획에 포함²⁶⁾

옌커쓰(严可仕) 정협위원 및 푸젠성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3회 4차 회의에서 국가 원양어업기지를 국가중대사업으로 국가발전계획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서 '14·5' 계획 등 국가차원 계획에서 기지 건설용 해역, 토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측면에서 관련 부서의 자원을 통합하여 국가 원양어업기지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기지 건설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채권 신청,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농업농촌부, 상무부, 교육부 등이 연합하여 산업발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의 전문정책을 제정하고, 해양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 설립,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7) 생태보호적인 수산양식 추진²⁷⁾

판비링(潘碧灵) 전국정협 상무위원 겸 민진당 후난성위원회 주임위원 겸 생태환경청 부청장은 「수산 생태화 양식 추진 생태 환경 품질 지속 개선」의 제안을 제출했다.

현재 수산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 문제들이 많으므로 「수산양식 오염 예방통제 조례」 등 법률의 빠른 제정을 통해 현대화 어업산업 기술 시스템

25) <https://mp.weixin.qq.com/s/qGThoAbrvMTID4XZdcuynw>

26) <https://www.163.com/dy/article/G4FMG7SR0511KMS0.html>

27) <https://new.qq.com/omn/20210310/20210310A03ULG00.html>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템, 과학기술 혁신 연합을 구축하고, 전국 및 지방단위 녹색 생태화 수산양식 특색 브랜드를 육성, 국가가 소유한 어장, 집중 못 양식장 구역에 폐기물 생태화 처리 구역을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저장, 찹수 등 지역의 선진 양식장 정비정돈 경험을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8) 농(어)촌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농수산물 콜드체인 물류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강화²⁸⁾

첸샤오팡(陈小平) 정협위원 겸 민주당 전국건설협회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향촌진흥 추진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농(어)촌 인프라시설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농(어)촌 소비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 설계 강화, 국가 및 성급 디지털 향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농(어)촌 및 농(어)민 디지털 운용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민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품질 농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판매 경로를 확대하며, 원산지 창고 설치, 물류 및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을 가속화하여 물류효율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왕쓰링(王士岭) 전국인대대표 겸 산동란텐그룹(山东兰田集团) 당서기는 전국 통일 공익성 식품 콜드체인 물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관리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식품 콜드체인물류 관리 플랫폼 및 시, 현급 식품 콜드체인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구역내 농수산물 생산, 식품공업 생산, 수입식품, 창고저장, 운송시설, 마트 및 도매시장 등 각종 판매에서부터 단체 및 개인 소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콜드체인 자원을 통합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실시할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관련 부서들이 플랫폼에서 제공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식품 콜드체인물류 산업의 시장 감독관리, 환경 감독관리, 위생안전 감독관리, 품질관리, 제품정보 추적, 긴급 상황 처리 등 직무를 이행하여 식품 콜드체인 물류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4 2021년 중국 ‘양회’의 시사점

2021년 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방역문제로 인해 약 1주간 진행 후 조기 폐막되었다. 올해 양회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과 함께 2025년 장기비전 및 목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번 양회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10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19기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해 10월 당 대회 등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양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필수적이었다.

28) <https://baijiahao.baidu.com/s?id=1693577687495870908&wfr=spider&for=pc>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이번 양회의 최대 중점사항은 **‘안정적인 중국의 미래 방향 설정’**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14.5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설정의 첫해로 포스트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미-중 관계 등 국제관계의 변화속에 ‘장기적인 정치 체제와 경제의 안정성’이 강조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개막식의 「정부업무보고」에서 2021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6%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IMF 8.1%, OECD 8.0%, 중국 사회과학원 7.8% 등 전망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리커창총리는 폐막식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는 목표치가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경기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면서 실제로는 6% 이상 성장 가능성도 내비추었다. 이러한 답변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양적위주의 고도성장을 추구했다면, 향후에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번 양회에서 통과된 ‘14.5’ 계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처음으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 구간 내에서의 경제운행을 유지하되 매년 상황 맞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또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키워드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의 해양경제의 발전이다.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로 보는 15년 후 중국 미래상 중 하나는 해양강국이다. 중국은 고품질의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및 특화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연해, 수역, 해역을 일체화한 종합 정비체계 구축 모색을 통하여 해양강국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및 황하유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양경제 발전공간의 적극적 확대"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의 2006년 후진타오 전주석의 ‘해양강국’의 최초 언급 이후 꾸준히 추진된 “신시대 해양강국” 정책을 고수하고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고품질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 해양수산분야의 생태환경(生态环境) 정비역량 강화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에너지소비’라는 새로운 지표가 설정되었다. GDP 단위당 3% 수준의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해양수산분야에서의 친환경 녹색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회의 해운분야에서는 탄소제로배출선박 개발을 통한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LNG 선박 보급 및 확대 등을 통한 창장항운 발전의 녹색전환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해양분야에서 해양보호지 체계 건설 강화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블루카본 싱크 발전’ 등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수산분야 역시 수산생태화 양식추진, 녹색 양식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양수산분야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때로는 중국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협력도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해양수산 생태환경 분야에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향후 중국과의 협력 또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관련 업계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 개발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신형인프라 투자는 중국의 향후 인프라투자의 핵심인바, 5G, 빅데이터, AI, 무인자동차 등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상의 제조강국,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중국, 네트워크 강국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택트’ 시대에서 이러한 신형인프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다양한 신업태들이 탄생했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무인선박, 스마트 항만, 물류플랫폼, 스마트 양식장 등을 비롯하여 이러한 신형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발전, 지원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개혁과 개방의 지속이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자유무역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자유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항만건설비 징수 전면폐지, 국제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항만 요금을 정리 및 표준화와 통관 용이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개혁방향도 밝혔다. 또한 RCEP의 조기 이행, 중국-EU 투자 협정 체결을 촉진하고,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며,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CPTPP 참여를 적극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국제관계의 변화속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 및 관련 업계는 이러한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하나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벤치마킹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쌍순환 발전 전략” 따른 농어촌지역의 개발 정책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불명확해진 국제정세에 따라 지난해 이후 국내와 국제 경제 발전의 “쌍순환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번 양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쌍순환 발전 전략”의 핵심은 농어촌지역의 수요 창출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강조하였으며, ‘부장 통로(部长通道)’에서 농업농촌부 장관은 농촌발전을 추진하여 농(어)촌 공간계획을 세우고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면서 창고시설 및 콜드체인 물류 구축과 함께 중자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촌에서의 소득창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과거 한국의 어촌개발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한중 협력 사업 진행을 고민해 봐야 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총괄·감수: 한광석 센터장
김은우 부연구위원(양회 일반)
진선선 연구원(해양)
하염희 연구원(수산)
장원형 연구원(항만물류)
육천연 연구원(해운)
kmishanghai@naver.com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20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
- ▶ 이슈 포커스 : 2021년 '양회'로 보는 해양수산 이슈와 시사점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해운 · 항만 · 물류

- [우분-양산 최대 규모 화물선 운항 개시](#)
- [‘일대일로’ 8년간의 중국-유럽 정기열차 변화](#)
- [2035년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사특구 완공 예정](#)
- [중국의 중구해운, 상하이-닝보-호치민 항로 개설](#)
- [CSP, 텐진항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TICTN\) 지분 34.99% 인수](#)
- [푸젠성, 4억 톤 대형항만 건설 5개년 계획 발표](#)
- [2020년 세계 20대 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
- [퀴넨드나겔, 중국최대 민영 의약회사와 전략적 협력 체결](#)
- 양저우항 해사처 “창장보호법” 실시 후 범칙금통지서 발행 시작
- 산둥성 5억 5,400만 위안 투자한 철도전용선 건설에 박차
- 장쑤·저장, 창장삼각주 수상교통집행법 일체화 추진
- 닝보저우산항 2월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치 경신
- 산둥성, “14.5”기간동안 현대화된 항만군 건설과 성내 연해항만 만 톤급 이상 선석 360개로 늘릴 예정
- 산둥 칭다오항, THE 얼라이언스 유럽 2선 선박 의 효율성 기록 경신
- 에버그린, 1만 8,000개 컨테이너 생산 주문

해양 · 수산

- [광시\(广西\) 해양경제 성장 가속화](#)
- [자연자원부와 국제해양학원\(IOI\) 2021년~2025년 협력 MOU 체결](#)
- [장하이원\(张海文\) 정협위원 제언 : 해양 신소재 산업의 발전 촉진해야](#)
- [장허생\(蒋和生\) 정협위원 제언 : 근해해양 생태환경 개선 필요](#)
- 푸젠성(福建省) 2020년 해양생산총액 약 1조 5000억 위안 기록, 전국 3위 차지
- 중국 해양로봇클러스터 완전 독자적인 협동작업 최초 실현
- 중국선박그룹 해양플랜트연구원 칭다오에서 정식 설립
- 유멍쥔(尤猛军) 인대대표 겸 푸저우시 시장 건의 : 푸젠 국가 '스마트 해양시범구' 선도적으로 건설
- 류홍광(刘红光) 정협위원 제언 : 심원해 구역에 적용되는 '해상풍력발전 건설 관리방법' 제정 필요
- 인펑(印萍) 인대대표 건의 : 해양생태 환경보호 공익소송의 주체 명확하게 할 필요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